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연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미정	강교현	화 10am
	ACA	김행자	금 10am
다문화	나진	김릴리	수 4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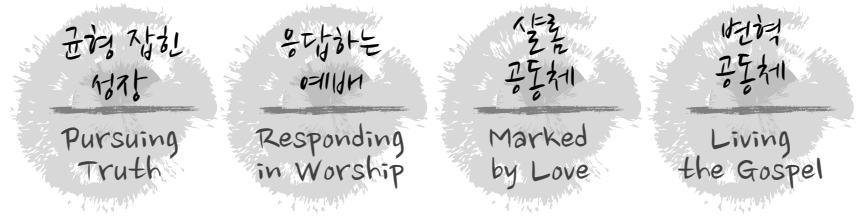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윌라멧 A, 자매: 윌라멧 C,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10/29	11/5	11/12	11/19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박미현,곽은영 /심미진,김남순	임은숙,최정아 /이찬미,황진희	신윤선,이주영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최설아 /김새롬,전혜경
주차 봉사	변상윤/Tom Flynn	이종천/김민수	Rick Geib/대호	Chris Steenkolk /이장춘
예배 안내	IMAN (10월) & 아테네/샤론 (11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선교적인 삶 :: 선교의 다음 단계 Next Steps in Mission

본문: 골로새서 4:2-6
설교: 빌 독터롬 박사

골로새서 4장 2-6절

- (2절) 기도해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 (3절)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 (4절)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절)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 (6절)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몇주 동안 “선교적인 삶”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선교의 다음 단계”라는 제목으로 본 설교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놀라움이 자기 만족과 편안함으로 퇴색해버리는 일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왕국의 그 현실에 깊이 파고 들지 않으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 제자를 양육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전문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이 모두 이 사명에 참여해야 하며 그 일은 다음과 같이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해야 합니다.

1. 기도하십시오
2.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며 은혜와 지혜로 전도하십시오.

목상 및 적용 질문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받은 통찰, 원칙, 관찰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새삼 깨달은 것이나,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보십시오.
2. 기도해 헌신하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지나 않습니까?
3. 우리가 선교에 초점을 두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집중하고 참여하기 위해 기도해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각 그룹이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로서 기도해 최우선 순위를 두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4. 기도가 절제 훈련의 한가지인데 감사하는 것이 기도해 어떤 역할을 차지합니까? 응답이나 결과를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를 기도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선교의 전략으로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한 것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특별히 통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나 통찰을 가지고 우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구성해보시겠습니까?
6.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에 스며들어가 제자를 만든다는 선교 전략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행동이 복음의 효력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7. 지금 생활의 일정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기회를 선용하라”는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 일정을 어떻게 조절해볼 수 있겠습니까? 영원에 대한 인식이 삶의 시간 가운데 최대한으로 일어나도록 자신의 생활 속도를 조절해볼 수 있습니까?
8.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9. 오늘 말씀에서 성도님이 받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도님의 그룹에서 이번 주에 성도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침례식 (Baptism)

오늘 11시 예배에서 침례 받으시는 지체를 소개합니다: 전미주 자매.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 신실하고 기쁜 동행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2. 2017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오늘 'JBS'반은 벽난로방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후, Willamette C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예비목자훈련'은 한인부 사무실에서 4시 30분부터 모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다음 주 주일 (11/5)에 다시 모입니다.

3. 금주 수요일예배

금주 한인부 수요일예배에서는 윤에스터 선교사님 (YWAM, 중국)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4. 일광절약제 해제 (11/5)

다음 주일인 11월 5일 새벽 2시를 기준으로 2017년도 일광절약제 (Daylight Saving)가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호)

11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십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 지역

1. 바운더리 세미나: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오레곤 선교교회 주최로 바운더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건강한 관계 기술과 소통 방법에 관한 세미나이며,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 일시: 11/4 (토) 7am-8:30am
11/5 (주일) 2-4pm
11/11 (토) 7-8:30am
11/12 (주일) 2-4pm

- 장소: 오레곤 선교교회

- 강사: 윤에스터 선교사 (YWAM, 중국)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빌리지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알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 2)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오늘밤 (전국적으로) 만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음식 봉사자 (Meal Ministry) 모집

여성 사역부에서 음식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수술, 질병, 출산등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 음식을 공급하는 자원 사역입니다.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이메일로 연락이 가게 되며 그 때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Jean Alleman, alleman@comcast.net 또는 Jen Spickelmier, jens@vbconline.org).

3. 성매매 구출자를 위한 기부 행사

10월과 11월, 빌리지의 반-성매매 팀(Anti-Trafficking Team)에서 성매매 구출자들을 위한 기부를 받습니다. 돕기 원하시는 분은 스마트폰과 기프트 카드(\$5-25)를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Insil Kang, insilk@vbconline.org)

4. 빌리지 대학 특별 세미나 (11/11-12)

빌리지 대학에서 아래 두가지 특별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vu.vbconline.org 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바이블은 어떻게 지금의 바이블이 되었나 (11/11(토), 9am-4pm)
- 유산 계획 세미나 (11/12(주일), 2-3:30pm)

5. 가을 재정회의 (11/5(주일), 6-7:30pm @ 대예배당)

2018년 예산안을 미리 보고, 장로들과 빌리지 스텝들과 질의문답하실 수 있는 가을 재정회의가 11월 5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6. 포인세티아 (Poinsettia) 판매

10월 한달동안, 중고등부 2018년 여름 수양회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목적으로 6"와 8" 포인세티아를 판매합니다. 로비에서 주문하신 후, 추수감사절 이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문의: Dan Son 또는 Susan Moore, susanm@vbconline.org)

7. 정신건강 컨퍼런스: 우울증 벗어나기 (11/4(토), 9am @ 대예배당)

Dr. Gary Lovejoy, Dr. Gregory Knopf, Bonnie Knopf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 컨퍼런스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돌파구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breakthrough.vbconline.org, 등록비 \$20)

8. Discover Village (10/28(토), 10/29(주일), 각 예배 후 @ Columbia Room)

빌리지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빌리지에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고, 빌리지 스텝들을 만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1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변혁사역팀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하, 오픈도어) <https://www.opendoors.or.kr/> 는 매년,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1억 명에서 올해는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연간 7000여명이 희생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도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300여 교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천 박해 상황을 알려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90%), 시아파 이슬람교(9.7%)
- 인구: 약 34,169,000명, 기독교인: 수 천명(추정)
-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 박해순위 3위
- 수도: 카불(Kabul)
-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부족간 적대감(Ethnic antagonism), 조직적 부정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은 박해 점수 89점으로 2017년 세계박해순위 (World Watch List, WWL)에서 3위를 차지했다. 작년 기록은 88점에 4위였다. 아프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전방위에 걸쳐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폭력 수위 역시 2016년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높게 집계되었다.

박해원인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은 국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친족과 공동체에 수치를 입히는 배교 행위로 여겨진다. 따라서 비밀리에 개종한 이들은 개종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 아프간 일부 지역은 여전히 탈레반 (Taliban) 치하에 있으며 권력 쟁탈을 위한 습격과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한다. 과격 이슬람 교리에 심취해 있는 탈레반 현 수뇌부는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작전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사상자와 난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에서 9월 사이 민간인 사상자는

8,397명에 달했으며 총 382,371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Muslim Background Believer, MBB)이다. 개종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들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현지 사회로부터 차별과 폭력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살해될 수도 있다. 무슬림 성직자들이 선동하고, 현지 관원들마저 합세하여 MBB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라는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며, 끝내 이슬람교를 저버린다면 변절자로 간주되어 신변이 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부족간 적대감(ethnic antagonism): 아프가니스탄식의 사고 방식에서 국가란 외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은 친족, 부족 순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국가의 중요성을 훨씬 능가한다. 아프간인들은 가족과 마을 그리고 부족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투철하다. 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히 외래의 문물을 수용하는 사람은 전통으로 회귀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된다.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가는 소속된 사회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추방 당하게 된다. 이는 모든 '일탈'에 적용되는 얘기지만 특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 탄압의 정도가 달라진다. 기독교는 아직까지 아프간 문화와 사회 그리고 이슬람교에 적대적인 서구의 문명으로 간주되며,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 방식은 모두 반역죄로 여겨진다.

조직적 부정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수출 상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고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기간 빈곤에 처해 있다. 국내 총생산(GDP)의 무려 80%가 비공식 산업에서 비롯되며 조직적인 부정부패 및 범죄가 만연해 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빈곤계층에 속해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 아프가니스탄 경제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아편과 같은 불법 마약 생산이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귀비를 재배해서 얻는 수익은 밀 농사 소득의 11배에 달한다. 아프간의 아편 거래 규모는 공식 국내총생산의 15%에 해당한다. 탈레반은 마약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국내 마약 밀매 소득의 70- 80%가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아편 생산지인 남부 헬만드 주(Helmand)는 전체 양귀비 재배 면적의 50%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현재 탈레반의 수중에 있다. 2016년 10월 발표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아프간 아편 생산량은 2015년보다 43% 증가한 4,800 톤으로 나타났다. 양귀비 경작지 면적은 1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무장 단체 지원에 사용되며 국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마약 밀매를 방해하는 대상은 누구든지 제거당한다. 마약상들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일부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한정된 박해는 아니지만(사실 기독교인은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 마땅히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박해배경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수세기 간 불안정한 민족이었다. 원래 페르시아 치하에 있다가 1709년 새로운 국가로 독립했다. 아프간 북서부 지역은 '호라산(Khorasan)'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단어는 2015년 1월 아프간 무장 세력이 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고 '호라산 이슬람 왕국' 설립을 선언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무장 세력은 아프간 북동부에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시아 무슬림 하자라 공동체(Shia Hazara) 등 소수 집단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서양권에서 유래된 '국가'라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사람들은 부족과 언어, 그리고 민족성에 충성심을 표하지만 국가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프간에서 발생 하는 모든 사안은 이러한 다종의 렌즈를 통해 관찰해야 한다. 수도 카불(Kabul)에서 집권했다고 해서 모든 주에서 정권을 쥐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이것으로 아프가니스탄 정치의 복잡한 성질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1970년대 이래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인근 국가 및 세계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탈레반이 2015년 10월부터 짧은 기간 장악했던 쿤두즈(Kunduz)는 2001년 이래 탈레반이 점령한 첫 번째 큰 도시였다. 이로써 탈레반은 자신의 세력이 여전히 견재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2016년 7월, 8월 그리고 10월에 발생한 대규모 습격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프 간에 다른 무장 세력도 여럿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인 사상자가

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2016년 5월, 탈레반의 예전 수장이 2013년에 사망하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고 선언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후자가 무인기 공격에 사망하면서 탈레반의 움직임은 한동안 잠잠했다. 현 지도자 몰라 하이바툴라(Mullah Haibatulla)는 강경한 이슬람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 분쟁이 종료되거나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현재 탈레반과의 모든 종류의 평화적인 협상이 일절 중단된 상태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는 대화를 재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모금 역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영국 비정부기관 글로벌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프간 북부 몇몇 무장 세력들이 귀중광물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주요 수입원은 아편 등 마약 거래에서 비롯되며 이는 탈레반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것이 탈레반이 마약 거래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남부 헬만드 주를 장악 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이유다. 마약 거래 소득은 현지 정부 관원들의 손에도 들어간다.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개인영역:** 아프간 정부와 대중들의 생각은 아프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으며 이슬람 이외의 종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슬림배경신자 (MBBs)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개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은 공격의 대상이 되며, 당국에 체포 당할 수도 있다. 가족들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숨기기도 하는데, 가족들 중 어느누가 이슬람국가(IS)나 탈레반(Taliban)에 가담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IS와 탈레반 조직원들은 사생활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한다. 사회통제는 엄격하며 개종한 신앙을 오랫동안 숨기기로 매우 어렵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개종자들이라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개종한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을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sa)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상황은 더 나빠진다. 더욱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개종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단일종교이기에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은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가족영역:** 이슬람은 아프간의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종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생각할 수조차 없다. 개종한 종교로 등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독교식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개종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식 예법에 따라 매장 된다. 만약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녀들을 억지로 떼어내 다른 무슬림 가정으로 입양시킨다. 이러한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만약 개종한 사실을 주위에 숨긴 채 살아갈지라도 자녀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계속해서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sa)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어쩌다 부모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만약 개종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이나 재산 상속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무슬림배경신자 (MBBs)들은 때때로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구금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을 떠나는 행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영역:** 개종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역사회 자원과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누구나 이슬람사원에 참석할 것을 강요 받기에 무슬림 배경신자 (MBBs)들이 의심받지 않은 채 빠져 나오기란 무척 어렵다. 지역사회는 명령에 충성할 것을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시하며 감시하고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간에 아프간의 이슬람식 종교관과 정치관으로 되돌아 올 것을 강요당한다. 이를 위해 신체 고문이나 주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무슬림배경신자 (MBBs)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짓된 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갖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약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조사와 심문을 받게 된다. 심문은 정부당국과 관계없이 탈레반 또는 IS에 의해 혹독하게 자행되고 있다.

***국가 영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어떠한 법도 이슬람의 규정과 교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지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슬람을 반대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불분명하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이며, 무슬림 신앙 외에 그 어떠한 종교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종 혐의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며,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제외한 무슬림 및 소수자만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교와 아프간 종족과 문화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신앙 때문이 아닌 다른 심각한 범죄 즉, 국외정보기관의 스파이, 살인 또는 마약 사범과 같은 반역죄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교회영역:** 아프가니스탄에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다. 수도 카불(Kabul)에 위치한 이탈리아 대사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예배당이 전부이다. 이마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 대사관 직원들과 군인들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 탈레반 또는 감시기관에 통보된 모든 모임은 강도 높은 감시를 받게 된다. 종교 집단의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으며, 모든 모임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종종 성경 전달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더 큰 단체와 접촉하기 전까지 감시하거나 잠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연행해 심문한다. 물론 기독교 관련 자료들은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인터넷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가까이에서 감시한다. 인터넷 사용은 외딴지역일수록 접속이 어려워진다.

***폭력:**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비록 2017년도 기독교박해(W.W.L) 보고기간 동안 일어난 외국인 기독교 노동자 살인은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가족들에 의해 개종 사실이 발각된 몇몇 무슬림 배경신자(MBBs)들을 처형한 사건은 있었다. 지하 기독교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을 의심 가는 건물은 표적이 되고 폐쇄되며 심지어 당국의 지지를 얻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혐의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2016년 7월 범죄 조직은 국제 구호단체에서 일하던 카톨릭 인도인 여성을 납치한 지 6개월만에 풀어준 사건이 발생했었다.

자료출처: <https://www.opendoors.or.kr/>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2 침례간증

전미주 자매

저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과 친정 식구를 두고 떠나 온 길이었습니니다. 지난 7년간 귀한 딸도 얻게 되었고 남편은 어려운 학업을 마치고 직장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허무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이루어 내고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고 미국에서 정체되어있는 듯한 제 인생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 인생에 항상 주님께서 기다려주셨고 동반하고 계셨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란 남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낯선 땅에서 신실한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로 저를 차례 차례 초대하여 주셨고, 드디어 온전한 신앙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이 곳 빌리지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의 힘을 직접 경험하게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내,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다시 감사드리고 제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의 자녀이며 제자로 살아가기로 감히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 또한 응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